

# 서울강서초등학교 23 오서준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 따뜻한 해가 쨍쨍

제목 : 넷ENDO 씨를 사다:

오늘 어린이날 선물로 넷ENDO 씨를 샀다. 바쁘에서 집으로 온 후에 바로 아버지가 설치를 해주셨다. 그 다음에는 아버지와 함께 게임을 했다. 모두 스포츠 게임들이었다. 맨 처음에 볼링을 했다. 아버지는 100점을 넘었다. 하지만 난 62점이였다. 그 다음에는 농구를 했다. 아버지는 골을 1번 넣었다. 나는 2번 넣었다. 그 다음에는 탁구를 했다.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. 결국 2:6으로 내가 졌다. 그 다음에는 양궁을 했다. 조준이 정말 어려웠다. 다음 게임은 검술. 맨 처음에는 내가 이기는 줄 알았다. 하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. 아버지가 나를 역전했다. 또 졌다. 그 다음에는 씨이클을 했다. 단체 경기였다. 나와 아버지가 같이 다른 선수들을 앞질러 갔다. 하지만 결과는 11위. 한번 더 했다. 이번엔 2위. 그 다음에는 골프를 했다. 쉬웠다. 하지만 힘 조절 때문에 졌다.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씨이클을 한번 더 했다. 나와 아버지가 아까 할때는 같은 팀이었다. 하지만 지금은 다른팀(현재 맨 처음에는 이기는 줄 알았다. 하지만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날 또 역전했다. 막상 막하였다. 그 다음에는 정정정 내가 지는 쪽으로 갔다. 결국, 또 졌다. 비록 내키긴 했지만 재밌었다. 토요일에 또 아버지랑 하고 싶다.